

# OEE로 시작하십시오.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됩니다.

OEE 비율을 통해 생산 부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 
하지만 상황을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면  
DPM(Digital Performance Management)이 필요합니다.

## DPM은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을 밝혀냅니다.

다음 예에서 OEE만 측정하면 패키징 라인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이 근본 원인이라면 이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? DPM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므로 가장 영향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.



**DPM은**  
플랜트의 손익에  
즉각적인 영향을  
미칩니다.  
실현 방법:

- 🔍
**문제 식별 및 우선 순위 지정**  
가장 중요한 생산 부문의 제약 조건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리소스를 중점 투입
- ⚙️
**근본 원인 분석**  
좀 더 세분화된 방식으로 시간 손실과 관련된 모든 이유를 실시간으로 측정
- 👁️
**구체적인 개선 조치**  
시를 활용하여 손실 이벤트 전/중/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권장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
- ✅
**영향 검증**  
폐쇄 루프형 추적 가능성을 통해 재무상의 영향 수량화

##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솔루션:

제약 제조업체에서 DPM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십시오.

**문제**

제품 수요 증가 및 생산 속도 감소.

DPM 솔루션

지속적인 개선 이니셔티브를 통해 해결할 주요 문제점의 우선 순위가 지정됨

표준화된 접근 방식으로 작업 현장 데이터를 수집 및 시각화하고, 손실을 손실된 시간 단위로 파악함

영향

- ✔️  
**6주 후 17%의 개선 효과 실현**
- ✔️  
**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체계화됨**
- ✔️  
**수동 데이터 입력 과정이 사라지고 성과 관리가 표준화됨**

[자세히 알아보기 →](#)